

아한정제영(雅閑亭題詠)

1881_김국광(金國光)·신숙주(申叔舟)·송익필(宋翼弼)·김은휘(金殷輝) 지음/최창환(崔昌煥) 씀_

40.0×127.0cm



양성당의 전신인 아한정은 원래 최청강(崔淸江, ?-?)의 별서(別墅)였다. 이 현판에는 아한정에 관한 김국광(金國光, 1415- 1480), 신숙주(申叔舟, 1417-1475), 송익필(宋翼弼, 1534-1599), 김은휘(金殷輝, 1541-1611) 등이 지은 시문이 판각되어 있다. 글의 말미에는 최청강의 후손 최창환(崔昌煥)이 아한정 건립과 여러 시가 전해오는 유서를 설명해 두고 있다.

雅閑亭題詠

桃花紅雨散林亭 一曲新聲激浪清 間看紫蜺飛立鈎 不知楊柳暮烟晴

光山君金國光

山風溪雨旆高亭 十里灘聲入耳清 久阻不堪尋訪主 緣楊鶯語報新晴

高靈君申叔舟

散擲琴檣倚小亭 池荷香動醉魂清 沙明十里映疏雨 日照千林猶晚晴

天容雲彩總山亭 石壑方塘活水清 休道此翁無可友 一雙幽鷺下秋晴

秋光濃翠幽亭晚 醉醒來枕簟清 遙想夜深奇絕事 一輪明月萬山晴

壽隱 宋翼弼

背山面水有高亭 深樹黃公語更清 莫道雞龍無意立 雲衣奪却報天晴

深山景物拱閑亭 紅白蓮池雙鏡清 翻覆俗塵諱不到 只變龍巖出雲晴
水作青龍迴此亭 穿沙激石更澄清 秋來卻恁雲外岳 盡着錦綉美畫晴
溪流碧玉帶寒亭 塵絕禁書景自清 取醉閒臥無一事 水禽猶報暮山晴
玉樹瓊林銀作亭 魚龍寒壑潭水清 千峯萬壑盡埋設 惟有松陰雨雲晴

金僉樞

余先祖雅閑公於世祖朝登科 有文章名 嘗作亭於黃城之林邨 扁曰雅閑 有金光山 申高靈二公題詠
公之暮境菟裘也 後爲庶尹金公所得有宋龜峯先生 金僉樞公題詠 轉屬於沙溪金先生 先生感亭之被
燬于兵燹 構堂於遺址改號養性 有諸鉅公題詠仍作文以記之 厥后堂亦廢 士林議重建而未遑庚辰遷
院之移建 乃以院中舊有凝道堂 做古厦屋之制也 畧加修葺扁以養性 復揭亭與堂諸詩于壁上 噫登是
堂者 孰不仰先生道德光輝 而公之遺蹟賴以不泯 若余者觸物興懷當以何哉 公諱清江月城人也

崇禎五辛巳月日崔昌煥謹識

아한정제영[雅閑亭題詠]

복사꽃 붉은 비되어 아한정에 흠어지니
새로운 노래소리 거센 물결같고 청아하네
자주색 접자리가 드리운 낚싯대에 앉아있는 모습 한가로이 보다가
버드나무에 낀 저녁 연기가 맑아지는것도 몰랐네

광산군(光山君) 김국광(金國光)

산바람 계곡의 비 높은 정자를 감싸 안고
심리 개울소리 귤전에 맑게 들리네
오래 보지 못했음이 안타까워 주인장을 찾으니
푸른 버들의 꾀꼬리 소리가 날씨가 맑음을 알리네

고령군(高靈君) 신숙주(申叔舟)

거문고와 술통을 밀쳐두고 정자에 기대서니
연못에서 풍겨오는 연꽃향기에 취한 정신이 맑아지네

고은 모래 십리에 성긴 비 내리다가
해가 나서 온 수물을 비추니 저녁 공기가 쾌청하네

하늘모양과 채색구름이 산 정자를 흔들자
늦 취기에서 깨어나니 베개 자리 시원하네
이 늙은이 친구할 이 없다고 말을 마소
흰 갈매기 한쌍이 맑은 가을날 날아 내려오네

질푸른 가을빛이 정자에 젖어드는데
바위 쪼아 연못 만드니 맑은 생수가 흘러드네
깊은 밤 기막힌 일들 회상하는데
둥근달 환히 비추니 만산이 청명하리라
수은(壽隱) 송익필(宋翼弼)

산을 등지고 물을 가까이한 곳에 우뚝한 정자가 있으니
깊은 수림에 피꼬리 소리가 다시 선명해지네
계룡(雞龍)이 뜻을 세움이 없다고 말하지 마오
구름 옷을 빼앗아 내동댕이쳐 하늘 맑음으로 보답하네

깊은 산 풍경이 한가로운 정자를 받치고
붉고 흰 연꽃 못이 두 거울되어 맑구나
세상사 번잡한 일을 뒤집어 전혀 이르지 않고
다만 계룡산에 구름이 건혀 맑기를 바랄 뿐이라네

물길 청룡처럼 이 정자를 감싸고 도니
모래를 헤치고 임반에 부딪혀 맑은 물 흐르네
가을이 오자 기이하게도 구름 밖에 산이 보이는데
모두 비단옷 입고 산뜻한 그림 자랑하네

계곡에 푸른 구슬이 흘러 시원하게 정자를 둘러싸니

세속을 떠나 거문고와 책을 마주하니 풍광 스스로 맑아지네
술에 취해 한가로이 누워 하는일 없는데
물새 소리는 오히려 저녁 산의 말끔함을 알리네

구슬 나무와 숲 은빛으로 정자를 지어내니
겨울에 고기와 용이 깊이 숨어 못물이 맑은데
천 봉우리 만 골짜기가 모두 눈에 뒤덮였는데
오직 소나무 그늘 아래만 눈 없이 말끔하네

첨추(兪樞) 김은휘(金殷輝)

나의 선조 아한공(雅閑公)은 세조 때에 등과하여 문장으로 이름이 났다. 일찍이 황성의 임춘에 정자를 지어 편액을 아한이라고 하였다. 광산군 김국광과 고령군 신숙주 두분의 제영이 있었다. 이 곳은 아한공의 만년 은거지이다. 나중에 서윤을 지낸 김공이 송구봉과 첨추공의 제영을 얻어 달았다. 사계 김장생 선생께 전속(轉屬)된 연유는 사계선생이 아한정이 병화로 불타 없어진 것을 안타까워 하여 그 유지에 당을 짓고 양성이라고 개호하였다. 유명한 분들의 제영도 작문하여 걸어놓았고 그 후 양성당도 역시 없어졌다. 사람들이 중건을 의론하였으나 이루지 못하고 경진년(庚辰, 1880, 고종 17)에 돈암서원을 이 건하였다. 서원 안에는 오래된 응도당이 있었는데 옛날 하옥(廈屋)의 제도를 본 뜬 것이다. 간단히 지붕을 수리하고 양성이라는 편액을 달았다. 정자와 당에 있던 제반 시판들을 당의 벽에 다시금 부착하였다. 아! 당에 이 시판들을 올린 것은 누구라도 선생의 도덕이 빛남을 우려려 공의 자취를 이를 통해 잊지 않고자 함이 아니겠는가? 나와 같은 사람들은 그 시판을 대하면 회한에 잠김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아한공의 휘는 청강이고 월성인이다.

송정(崇禎) 5번째 신사(辛巳 1881, 고종 18) 월일에 최창환(崔昌煥)이 삼가 쓰다.

※ 宋翼弼, 『蠹峯集』 卷1, 七言絕句, 「次金希元黃山亭韻」에 수록.

※ 번역: 이원규 한국국학진흥원 고전국역위원